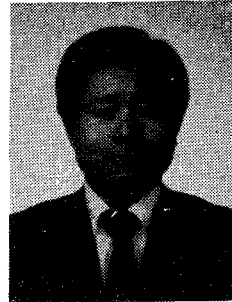


# 오늘의 환경문제를 생각하며...



김 종 제  
〈東進機械 기술상무〉



환경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대두된 것은 얼마 전의 일이지만 급진적인 발전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홍수처럼 범람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깊이 있는 연구와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성이 절실한 형편인 것 같다.

지구상에서 3차대전이 발발한 경우 “별들의 전쟁”일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실현 가망성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은 핵전쟁보다 더 무서운 환경문제이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일부분을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때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그에 대한 최선의 대책을 모색 발버둥치지만, 개개인으로부터 다른 개개인에게 보이지 않게 서서히 좀 먹어 들어 갈 때에는 그 누구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나 혼자 만든 공해를 무시해도 관계 없지 않겠나 하는 사고방식이 지구를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다.

세계적인 인구증가와 공업화, 그리고 새로운 물질산업의 발달로 공해의 종류도 다양화됨에 따라 처리방법이나 양적으로도 다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환경에 대한 문제를 양적으로 찾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심도있는 질적 향상을 기대함으로써 내일을 기약할 수 있지 않은가 싶다.

특히 기업인과 환경인, 그리고 행정관서 나아가서는 범세계적인 전 인류가 지구를 보전하는 데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후손의 생존을 위해 다 같이 공동 운명체로 형성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 명량한 직장, 발전있는 국가가 하나의 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

☆ 믿는 마음 지킨 약속

다져지는 신뢰사회 ☆